

“불안한 시대를 사는 능력”

사 40:8

요즘 우리는 한국은 진보와 보수의 양분으로 혼란이 극심해지고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을 보고 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유행이 반복 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거센 파도가 칠 때에 배를 선착장에 굳건히 메어 놓는 것과 같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매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은 계속 흘러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사는 지혜로 우리는

1.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매달아라

인생의 위기에서 오직 말씀을 붙잡아라

위기가 닥칠 때 복잡하게 생각하면 망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라.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라 모두가 다 멸망 당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살아 남은 사람이 바로 기생라합이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기에 살았다

(수 6:17)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위기에 처할 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살길 하나만 붙들어야 한다. 믿음, 기도, 예배, 말씀, 하나님 이라는 중요한 한가지를 붙들어야 한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여리고 성을 멸망시킨 후에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수 6:26)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만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는 아합왕때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당한 일로 성경은 전하고 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창 19: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고 결국 불타 죽고 말았다.

우리는 합리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자꾸만 이유를 묻는다. 이유를 묻고 납득이 된 상태라야 믿으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는다. 인생은 설명이 안되는 것이다. 다만 분명히 설명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만이 완전히 선다.

실제 인생에서 왜 라고 묻는 것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상황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이 안된다. 그리스도 인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본주의가 세상의 인본주의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이다.

말씀이 앞서가야 길이 열린다

우리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수 1:7)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 3 장) 요단강 도하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증거였다. 언약궤는 세상사람이 보기엔 언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요셉때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정착했지만, 그 후 그들은 바로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창 15: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D.L.무디의 성경에 적힌 T와 P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2. 하나님께 인생의 경영을 맡겨라

(잠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자신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의 경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삶입니다.

선교사들이 자기의 안락한 환경을 버리고 오지로 선교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포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뜻을 좇아 포기함을 통해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배를 목숨같이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심을 확정 시켜 주십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누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함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까지도 누리십시오. 고난에서 얻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즐기고 누릴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함과 염려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삶이란 염려를 내려 놓아라는 뜻입니다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너희를 고아와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라고 했습니다

(시골 할머니 택시 예화)

3. 복음안에 거하라

전도서에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입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후 5:17"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원래 영국은 해적이고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여자들이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글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 넣어지자 여성도 사회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

1.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제가 참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가 불안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성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전 1:9) 불안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세가지를 말씀 가운데 정리해 봅시다.
2. 불안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자신의 불안함 삶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낸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포기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자신만의 욕심이 있다면 진솔하게 고백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